

<2016년 10월 30일 주일말씀>

## <생각>이 온전하지 못하면, <육>이 무용지물이다

본 문 시편 33편 11절

『<여호와와 계획>은 영원히 서고 <그의 생각>은 대대에 이르리로다.』

시편 40편 5절

『여호와 나의 하나님여,

<주께서 행하신 기적>이 많고 <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>도 많아  
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

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,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.』

시편 92편 5절

『여호와여, <주께서 행하신 일>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,  
<주의 생각>이 매우 깊으시니이다.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지금까지 ‘생각’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.

<생각>은 ‘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’ 과 같습니다.

고로 <생각>이 온전해야 <육신>도 제대로 사용하며  
가치 있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.

<생각>은 ‘핵’ 과 같아서

<생각에 대한 말씀>은 끝도 없이, 받는 대로 나옵니다.

그만큼 ‘생각의 중요성’ 을 알고 깨닫고,

<생각>을 온전하게 하여

<육>도 <영>도 최대한 차원 높여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.

◎ 오늘도 ‘생각’ 에 대해 말씀합니다.

주제는 ‘<생각>이 온전하지 못하면 <육>이 무용지물이다.’ 입니다.

오늘 ‘생각’ 에 대해 말씀해 주고,

다음 주에 이어서 또 ‘생각’ 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다.

### <말씀 시작>

◆ 하나님도 성령님도 <생각>에 대해 핵적으로 말씀하시기를

“<생각>이 온전하지 못하면, <육>이 무용지물이다.” 하셨습니다.

◆ 왜 <생각>이 온전하지 못하면 <육>도 무용지물일까요?

<생각>은 ‘핵, 근본, 생명의 역할’ 을 하기 때문입니다.

◎ 핵이 되고, 근본이 되고, 생명의 역할을 하는 <생각>과

<육>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겠습니다.

(\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>

- ◆ <생각>은 ‘전기’와 같고, <육>은 ‘전깃줄’과 같습니다.
- ◆ <생각>은 ‘흐르는 물’과 같고,  
<육>은 ‘물이 흐르는 바닥’과 같습니다.
- ◆ <생각>은 ‘엔진’과 같고, <육>은 ‘차체’와 ‘기계’와 같습니다.
- ◆ <생각>은 ‘열매’와 같고, <육>은 ‘나무’와 같습니다.
- ◆ <생각>은 ‘글씨’와 같고, <육>은 ‘백지’와 같습니다.
- ◆ <생각>은 ‘집 안의 물건’과 같고, <육>은 ‘집’과 같습니다.
- ◆ <생각>은 ‘곡식’과 같고, <육>은 ‘땅’과 같습니다.
- ◆ <생각>은 ‘시침, 분침, 초침’과 같고,  
<육>은 ‘시계 동체’와 같습니다.
- ◆ <생각>은 ‘속’과 같고, <육>은 ‘겉’과 같습니다.
- ◆ 이와 같이 <생각>은 ‘핵, 근본, 생명 역할’을 하니,  
<생각>을 잘하고 늘 <자기 생각>을 귀히 관리해야 됩니다. <끝>
- ◆ 사람은 ‘생각 값’입니다.  
<생각>이 온전한지 보고, ‘사람의 가치’를 매깁니다.

(\*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2>

- ◆ <생각>을 통해 <육>이 행하고,  
<육의 행위>를 통해 <영>이 변화되어  
영원한 존재가 되느냐, 못 되느냐가 좌우됩니다.
  
- 이와 같이 <생각>이 ‘영 변화의 핵, 근본, 생명 역할’ 을 하니,  
<생각>을 ‘삼위와 주와 일체’ 시켜 생각을 잘하고,  
<자기 생각>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! <끝>
  
- ◆ <생각>이 ‘지옥 가는 데도 핵’ 이 되고,  
 <생각>이 ‘천국 가는 데도 핵’ 이 됩니다.
  
- ◆ <생각>에서 얻기도 하고, 못 얻기도 합니다.
  
- ◆ <생각>대로 <육>이 행하고 <영>이 변화되는  
‘생각 실상의 세계’ 입니다.
  
- ◆ <생각>에 따라서 ‘꿈과 영계의 자기 혼의 행함’ 도 좌우됩니다.
  
- ◆ <생각>이 흐리멍덩하면, <육의 행실>도 흐리멍덩합니다.
  
- ◆ 고로 <생각>을 선하게 하고 아주 잘해야 됩니다.
  
- 절대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된 생각’ 을 하고,  
<육>이 ‘생각의 실체’ 가 되어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.
  
- ◆ <자기 육>은 ‘자기 생각’ 을 닮아서 그 생각대로 행합니다.  
사랑하는 대상보다, 부부보다 성격이 더 닮아서 삽니다.  
<육신>은 ‘생각 실상체’ 입니다.

- ◆ <생각을 실천하는 것>이 ‘생각의 목적과 소원’ 이니,  
자기 생각을 버리고 ‘주의 생각’ 을 가지고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.

그러면 <자기 생각>이 ‘주의 생각’ 이 되고,  
<자기 육신>도 ‘주의 생각’ 을 닮아서 그 생각대로 행하게 되고,  
<주의 생각을 실천하는 것>이 ‘생각의 목적과 소원’ 이 됩니다.

- ◆ <전능하신 삼위의 생각과 주의 생각>을 ‘한 번 실천하는 것’ 이,  
<자기 생각>을 ‘만 번 실천하는 것’ 보다 그 ‘의’ 가 더 큼니다.

- ◆ <주를 떠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떠난 생각>은  
하나님은 ‘사망의 생각’ 으로 생각하고 대하십니다.

#### <잠시 쉬었다가>

- ◆ 항상 자기 앞에 ‘두 가지 생각’ 이 옵니다.  
하나를 <해야 될 것>이고, 하나는 <하지 말아야 될 것>입니다.

생각을 주와 일체시키고, 선하게 하고, 지혜롭게 판단하여  
<해야 될 것>은 꼭 하고  
<하지 말아야 될 것>은 꼭 하지 말아야 됩니다.

- ◆ 그런데 인생들을 보면, 생각이 짧습니다.

**생각이 짧다는 것은**

**어떤 일이 닥치면 최대한도까지 생각하지 못하고**  
**한 가지만 보고 짧게 생각하고 빨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.**

그러니 큰일도 짧게 생각하고, 단순하게 해 버립니다.

그러다 일을 그르치고,  
<해야 될 것>은 못 하고 <하지 말아야 될 것>은 필요 없이 하여  
하는 일이 안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.

- ◆ 더 영적으로 볼 때 **생각이 짧다는 것은**  
    <전체>를 보시는 ‘하나님의 생각’ 과 같지 못하고,  
    지능이 낮게 <부분>만 보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.
- ◆ <생각>을 최대한도까지 하고 판단하면, ‘충분한 답’ 이 옵니다.  
    <하나님의 생각>과 같게 만들고 판단하면, ‘온전한 답’ 이 옵니다.
- ◆ 생각을 짧게 하고 하면,  
    <일>도 제대로 안 되고, <작품>도 제대로 안 됩니다.

- ◆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생각의 차원을 높여라!

배우고 기도하고, 영적인 지혜자의 말을 듣고  
주와 일체 된 생각으로 만들어라.” 하셨습니다.

- ◆ <생각>은 ‘집 크기, 정원의 크기’ 와 같습니다.

고로 ‘집이 작다. 정원이 작다.’ 라는 말은  
    ‘생각이 짧다.’ 라는 말과 같습니다.

집이나 정원이 작으면 ‘불편’ 하지요?

정원도 5평짜리가 있고, 10평, 20평, 50평, 100평짜리가 있고,  
1000평, 3000평, 5000평, 만 평짜리도 있습니다.

집도 10평짜리부터 20평, 30평, 50평, 100평, 200평 등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.

어떤 사람은 2000평까지 크게 집을 짓고 삽니다.

<생각>이 ‘집과 정원의 크기’ 와 같습니다.

사람들은 저마다 작게, 혹은 크게 생각하고 삽니다.

<생각>이 작을수록 그만큼

<삶>도 살기 불편하고 <신앙>도 하기 불편합니다.

◆ <생각>은 ‘그릇’ 과 같습니다.

또한 ‘자기 생활 공간’ 과 같습니다.

<그릇>이 작으면, 많이 못 담고,

<자기 생활 공간>이 작으면, 그만큼 불편하게 삽니다.

<생각>도 이와 같습니다.

◆ 여자들을 보면 <생각>이 웅졸하고, 좁고, 감정적이고,  
시기와 질투를 잘하고, 섭섭함과 서운함을 잘 타는 자들이 많습니다.

<생각>이 마치 ‘도시의 좁은 골목길’ 같고,

‘시골 토담집들의 좁은 골목길’ 같고,

‘암벽과 절벽에 난 손바닥만 한 길’ 같습니다.

저마다 모두 생각해 보세요.

꿈에 <자기 생각>을 혼으로 보여 달라고 하고 보세요.

<자기 행위의 집>도 보여 달라고 하고 보세요.

어느 정도인지 보기 바랍니다.

좁으면, <성자가 타고 있는 황금 마차>가

그 ‘생각의 길’로는 못 들어가고 <옛장수>나 그 길을 왕래합니다.

- ◆ 꿈에 ‘혼’으로 못 보는 자들은  
생시에 ‘자기 육의 활동’을 보면,  
자기가 <생각>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 알게 됩니다.
- ◆ <생각>이 좁고 <행함>이 작으면 ‘큰일’을 못 합니다.  
<큰 길>이 아니라서 평생 ‘큰 차’가 왕래를 못 합니다.
- ◆ 모두 <생각>을 ‘월명동’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!
- ◆ 늘 ‘월명동’ 같이 만들라고 해도  
‘왜 월명동같이만 만들라고 하지?  
왜 서울같이, 도시같이 만들라고 하지 않지?’ 생각합니다.  
확실히 깨달아야 그와 같이 만듭니다.
- ◎ 왜 ‘월명동’ 같이 만들라고 했는지, 확실히 가르쳐 줄까요?  
확실히 가르쳐 줄 테니, 이제는 정말 확실히 알고 깨닫고  
<자기 생각>도, <행실>도 ‘월명동’ 같이 만들기 바랍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(\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3>

- ◆ 월명동은 처음에 보잘것없는 골짜기였습니다.

잡초와 엉겅퀴가 무성했고, 농토까지 풀밭으로 덮여 있었고,  
산에는 나무도 별로 없었고, 샘이 있어도 그나마 흙탕물이었습니다.

그런 곳인데 ‘하나님의 절대적인 뜻’ 이 있었기에  
〈1000년 성약역사 기간 동안 귀히 쓰는 성전〉으로 만들고,  
세계의 택한 자들이 몰려들게 한 것입니다.

- ◆ 그곳에 하나님과 성령님은 늘 좌정하시고, 주도 늘 역사합니다.
- ◆ 월명동에는 ‘하나님의 뜻이 담긴 보물’ 도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.  
모르면, ‘그동안 가르친 것들’ 을 생각하면 됩니다.

- ◆ 〈생각〉도 〈행실〉도 〈인생〉도 〈신앙〉도  
‘월명동’ 같이 이렇게 개발하라는 말입니다!

지금 이 ‘자기를 만들 황금기’ 인데,  
머뭇거리다가 〈때〉라는 해가 넘어가 버립니다.

어서 서두르고 재촉하여 ‘월명동’ 같이 만들기 바랍니다! <끝>

- ◎ 이제 왜 〈생각〉을 ‘월명동’ 같이 만들라고 했는지  
확실히 알았습니까?

- ◆ 아무리 섭리사 각 교회가 커지고 멋진 성전을 사도  
그 성전은 1000년 동안 가지 않습니다.

1000년 동안 갈 성전이 어디입니까? ‘월명동’ 입니다.  
또한 그곳에 앞으로 수억 명이 몰려옵니다.

고로 〈자기 생각〉을 ‘월명동’ 같이 만들라는 것입니다.

- ◆ 또한 ‘시대 구원자’ 같이 만들기 바랍니다.  
 <구원받을 자와 구원자의 차이>는 ‘땅과 하늘 차이’입니다.  
 <주>를 따라 그와 같이 만들어야 ‘하늘’ 같이 솟아오릅니다.

- ◆ <월명동>은 ‘세계 최고의 신화의 땅’입니다.  
 <자기 생각>도 이와 같이 만들라는 것입니다.

월명동에 가면 구경만 하지 말고,  
‘나도 이와 같이 만들어야지.’ 하고 생각해야  
 <마음과 생각>이 그렇게 됩니다.

- ◆ 아직도 곤고해하고, 적적해하고, 외로워하고,  
 마음이 좁고 쪼쪼하고,  
 가시 같은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고,  
 주가 잘 대해 줘도 뒤에서는 불평이나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.

모두 만들어지지 않고 개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

주는 이미 다 알고 ‘그에게 주는 복’을  
 <생각을 고치고 온전히 행하는 자>에게 줬는데도  
 모르고 계속 그 마음,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.

그래서 계속 차원을 높이지 못하고 ‘그 위치’입니다.

회개하고 온전히 할 때까지 ‘그 복의 물줄기’는  
 <온전히 하는 다른 자>에게 흘러갑니다.

- ◆ 하나님은 <땅>에 ‘자신의 상징적인 보좌’를 두시고,  
 그곳에 ‘실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작품들’을 두셨습니다.

곧 ‘월명동’이며, ‘그 안에 있는 수많은 작품들’입니다.  
이것도 모르면, 아직도 ‘그 면을 개발하지 않은 자’입니다.

### 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어느 날 ‘하나님이 월명동에 주신 것들’을 두고 기도하며  
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,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 
“그곳은 거룩한 곳이다. ‘네 발의 신’을 벗어라.” 하셨습니다.

이 말씀은 곧 “‘네 생각’을 벗고 보아라.” 하심입니다.

내가 ‘자연성전’과 ‘하나님이 주신 것들’을  
정말 귀히 보고 좋아하니,  
하나님은 ‘근본의 귀한 것 70여 가지’를 말씀해 주셨습니다.

하나하나 조금씩 밝힐 것입니다.

- ◆ 앞으로 ‘월명동 자연성전에 대한 문제’를 내 주겠습니다.

그래야 자꾸 알려고 하고,  
안 만큼 자기도 그와 같이 만들기 때문입니다.

- ◆ 그런데 ‘월명동에 대한 문제’를 내면, 맞히는 사람이 없습니다.  
자기를 그같이 만들어 놓으면, 맞힐 것입니다.  
안 만든 만큼 못 맞히고, 만든 만큼 맞힙니다.

- ◆ <월명동>은 지리적으로 ‘끝과 끝이 만난 지점’입니다.

고로 <구원역사의 마지막 끝>에 ‘시작’ 되었고,  
<섭리역사 절정기 끝>에 ‘휴거 역사’가 일어났습니다.

◆ <월명동>은 마치 ‘오른손 끝과 왼손 끝이 만난 지점’ 과 같습니다.  
또한 마치 ‘머리끝과 발끝이 만난 지점’ 과 같습니다.  
곧 ‘처음과 나중이 만난 곳’ 입니다.

◆ 하나님은 <월명동>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.

▶ 월명동은 ‘일요일 같은 지역’ 이니라.

▶ 월명동은 ‘휴거 같은 곳’ 이니라.

▶ <에덴동산>은 ‘처음 지(地)’ 라면,  
<월명동>은 ‘나중 지(地)’ 니라.

▶ <에덴동산>은 ‘아기’ 라면,  
<월명동>은 ‘다 큰 처녀 총각’ 이니라.

▶ <나 여호와가 끝 날에 행한다고 한 곳>이 ‘월명동’ 이니라.

▶ <그 날에 모두 드러낸다고 한 곳>이 ‘월명동’ 이니라.

▶ <월명동>은 ‘1000년사의 시작과 끝’ 이니라.

◆ 자기가 살면서도 ‘그 땅에 대해서 모르는 자’ 는 <소경>입니다.  
소경은 계속 더듬거리며 살아야 됩니다.

모두 배우고 눈을 뜨고 깨닫고,

<자기 생각>도 그와 같이 온전히 만들어 <자기 육>도 귀히 쓰이고,

그 행실에 따라 <영>도 귀히 만들어 영원히 귀히 살기를 축원합니다!

<전환>

◎ 이제 방향을 돌려 ‘세 가지’를 짧게 말씀해 주겠습니다.

◎ 첫 번째,

◆ 오늘 말씀을 다 쓰고, 다음 잠언을 받았습니다.

→ 웃기는 말을 했어도 ‘모르고 하는 말’ 이면,  
웃고 낚아도 기분이 안 좋다.

◎ 왜 이런 잠언을 받았는지, 짧게 설명해 주겠습니다.

◆ 한 제자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,  
그 제자가 내게 보고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.

그래서 잘 모르고 나름대로 구상하면서,  
그 제자와 각종 의논을 했습니다.

그 후에 알고 보니, 4년 동안  
그 존재물에 대해 ‘거꾸로, 반대로’ 생각한 것이었습니다.

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“정말 웃기네요!” 하고 말하니,  
하나님은

“너는 깨닫고 웃었지만, 나는 답답했다.

웃음이 안 나오고 기분이 나빴다.

그것도 4년이나 그리 봤으니, 얼마나 답답했겠냐.” 하셨습니다.

- ◎ 하나님의 뜻도, 성경도,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,  
하늘이 보낸 자도, 하나님이 주신 것도  
모두 ‘거꾸로’ 보여도 ‘바로’ 봐야 됩니다.

이것에 대해서는 <수요일>에 자세히 말씀해 주겠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◎ 두 번째,

- ◆ 그리고 한 잠언을 받았습니다.

→ 모르면, 부딪힌다.

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모르면, 서로 부딪힌다.

- ◆ 그리고 다음 잠언을 또 받았습니다.

→ <상대의 모순>을 고쳐 주려다가 오히려 <신앙>을 죽이게 된다.

- ◆ 선생의 방에 ‘여치’를 기르고 있는데,  
방에 ‘모기’가 들어와서 살충제를 뿌렸습니다.

모기는 즉시 죽었지만,

그쪽에 숨어 있었던 ‘여치’가 같이 살충제를 맞고  
시름거리다가 죽었습니다.

이와 같이 <모순>과 <사탄>을 잡으려다가  
<신앙>까지 잡게 되기도 합니다.

<자기 모순>도 고치고, <사탄의 역사>도 잡아내야 됩니다!

모기를 ‘손’ 으로 잡으면 <모기>만 죽고 <여치>는 삽니다.

이와 같이 깨닫고 잘 판단하여

<모순>은 고쳐 주고 <사탄>만 잡으라는 것입니다.

그러려면 <모순>만 고쳐 주고,

<다른 것들>은 꼭 칭찬해 주기 바랍니다.

### <잠시 쉬었다가>

◎ 마지막 세 번째,

- ◆ <하나님의 행하심>은 너무 깊어서 인간이 봐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.  
이런 것들이 ‘수백 가지’ 입니다.

◎ 그중의 ‘한 가지’ 만 짧게 말해 주겠습니다.

(\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4>

- ◆ <곤충들>은 벽을 잘 기어 올라갑니다.

너무 신기해서 방바닥에 백지를 세워 놓고

백지를 기어 올라가나 보니, 참 잘도 기어 올라갔습니다.

‘기술인가? 가벼워서인가?’ 생각하며, 섬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.

발바닥 검사를 해 보니 걸끄럽고, 솜털도 있고,

여자들 하이힐같이 뽕족하게 바늘 같은 것이 솟아 있었습니다.

마치 ‘징이 박힌 신발’ 로 ‘빙산’ 을 찍어 올라가듯,

그 발로 찍어서 기어 올라갔습니다.

기술도 아니었고, 가벼워서도 아니었습니다.

창조주가 아예 계획적으로

그렇게 섬세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

- ◆ <산>도 화산이 폭발하여 솟아올랐다 내려갔다 한 것이 아닙니다.

창조주 하나님이 계획적으로

하나하나 손을 대어 ‘산 준령’을 만드신 것입니다. <끝>

- ◆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조각가들이 췌덩이나 동을 녹여서

하나하나 손을 대어 주물을 떠서 ‘형상’을 만들듯이,

나 여호와도 지구 창조 당시 지구가 녹아 있을 때

하나하나 손을 대어 ‘산 준령’을 만들고,

산마다 작은 것까지 ‘거기에 맞는 모양과 형상’을 만들었다.”

하셨습니다.

- ◆ 화산이 폭발한 대로 그냥 놔두면

산마다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,

모두 비슷한 형상이라서 볼 것이 없고,

아름답지도 신비하지도 않습니다.

- ◆ 월명동 작품도 손이 안 간 곳 하나 없이 만들었듯이,

이 세상 만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을 기구로 삼고

하나하나 손을 대어 창조하셨습니다.

- ◆ 2016년 10월 섭리사 달력에 나온 <월명동 산 준령>을 자세히 보고,  
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.

바로 이 사진이지요? 잠깐 그 사진을 보여 주겠습니다. <영상5>

지금 이 순간에 다 깨닫지 못하니,

예배 후에 각자 자세히 보고 깨닫기 바랍니다. <끝>

### <마무리>

- ◆ <생각>이 온전하지 못하면, <육>도 무용지물이다.
- ◆ <생각>은 ‘핵, 근본, 생명 역할’을 하니,  
<생각>을 잘하고 늘 <자기 생각>을 귀히 관리해라.
- ◆ <생각>이 좁고 <행함>이 작으면 ‘큰일’을 못 한다.  
<큰 길>이 아니라서 평생 ‘큰 차’가 왕래를 못 한다.
- ◆ 모두 <생각>을 ‘월명동 자연성전’ 같이 만들어라!

◎ 말씀 마쳤습니다.